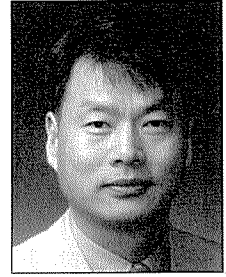


“현장사서의 단상(斷想)”



김성진*

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사서(司書, Librarian)'의 자격으로 첫 직장에 취직을 하였으며, 몇 군데 직장이 바뀌기는 했어도 현재까지 20여년 세월을 그 자격하나로 일을 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1년 동안 계열별 교양수업을 마치고 2학년 진급에 앞서 전공학과를 선택하던 그 시절에, 단지 취직이 빠를 것이라는 계열지도교수님의 말씀에 신설학과였던 도서관학과를 지망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나의 천직이려니 하고 받아들여면서 생활하고 있다.

도서관 실무 현장에 첫발을 들여 놓은 지 어언 20년이 지났다. 나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선배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더할 테지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네모 반듯반듯한 카드목록함들이 그때는 어느 도서관이나 할 것 없이 로비 또는 복도 한편을 즐비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여러 사람의 손때가 묻어 지저분하기도 하고 귀퉁이가 찢어지기도한 친필로 썼거나, 철필로 등사되었거나, 타자 또는 공타로 작성되었거나, 작성된 경위도 가지가지인 누런 카드목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용자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이용자들이 그 카드 한 장을 쑥 뽑아 들고 와서는 '이 책 빌려 주세요!' 하고 내미는 웃지 못 할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다.

서가에 배가되어 있는 도서의 스파인을 보면 또 어땠는가. 책표지의 재질에 따라 검은 페인트를 바르고 붓글씨로 썼거나, 검은색 매직을 바른 후 그 위에 전기펜을 사용하여 작성되었거나, 조잡한 형태의 스티커에 쓰여진 것들까지 각양각색의 스파인 레이블이 등장한다. 레이블의 높낮이도 일정치 않아 일견 쳐다보면 소위 파도가 치는 듯 오르락내리락하여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 않으나 차라리 그 속에 담긴 여유로움을 느끼게 만든다.

구입되는 자료들도 거의 도서자료에 한정되었고, 많은 업무가 수작업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하는 일은 많아도 업무의 효율은 지금과 비교 초차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만 있으면 도서관의 대다수 업무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자관에 맞게 세팅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여러 업무들을 손쉽게 처리하고 있으며, 자료관리나 이용면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 우리 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 위원, 해전대학 도서관 팀장, sjkim@hcc.ac.kr

또한 인터넷이라는 틀을 이용하여 자관 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각종 자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손안에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요구도 훨씬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어 가끔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날들과 비교해 볼 때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 등은 많이 변모했고, 도서관에서 사용하거나 이용되는 기술과 제도들도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맴도는 화두중의 한가지는 과연 '사서'가 전문직(專門職, profession)이 맞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 국어사전에서 '사서(司書)'는 '도서관의 정리·보존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직. 또는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YBM시사닷컴)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명 '사서'는 의사, 교사,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 전문가... 1812 - 사서)(<http://www.nso.go.kr/newnso/standard/occupations/occupations.html> 참조)

사전적인 의미로 '전문직'이라 함은 '장기간 학습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추구에 앞서 공공에 대한 봉사를 지향하는 직업. 성직자·법률가·의사·교사·과학자·기술자·예술가 등이 대표적이다. 체계적 지식이란 일반적으로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타인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파스칼백과사전, 동서문화사)

그렇다면 우리들 '사서'라는 직업은 정말 이 '전문가' 범주에 속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들끼리만 전문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전공서적 속에서 사서는 전문직이라 하고 있고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엔 갈끔치 못한 무언가가 있는 듯하다. 전문직이라 함은 그들의 업무를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보거나 대신할 수 없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전문직으로서의 대접과 그에 상응하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서의 전문적인 일들 중 일부는 IT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얼마간의 노력과 센스만 있다면 약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대체가 가능한 일도 많이 있다. 사서직의 새로운 일자리는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존 인력의 이직 또는 전직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 매년 새롭게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다수의 초보사서들이 배출된다. 공급과잉에 따라 이들의 취직문호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태이며, 이제 계약직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서로 차지하려 한다.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무색한 것 같아 선배 사서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가 변화·발전하면서 각종 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전문직이 증가하면서 전문직의 개념과 특성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교육노동자나 지식노동자라는 말의 등장은 이 직업들이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 외에는 보통의 직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우리들 '사서 전문직'도 이러한 개념의 변화 속에 더불어 묻혀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서로서의 자부과 긍지를 지니며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